

다시 부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⑧

以大慈憐憫一切故 於清淨法體中
이대자비연민일체고 어청정법체중
流出如是三聚淨戒 六波羅密
유출여시삼취정계 육바라밀
微妙法乳 乳養一切求解脫者
미묘법유 유양일체구해탈자
飲如是清淨之牛 清淨之乳
음여시청정지우 청정지유
非獨如來飲之成道 一切眾生
비독여래음지성도 일체중생
若能飲者 皆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약능음자 개득성아녹다라삼삼보트리
又問曰 佛說經中 令眾生修造伽藍
又問曰 佛說經中 令眾生修造伽藍
우문왈 불설경중 영중생수조가람
鑄寫佛像 燒香散花 燃長明燈
주사형상 소향산화 연장명등
日夜六時行道 持齋禮拜
일야육시행도 지재예배
種種功德 皆成佛道 若唯觀心
종종공덕 개성불도 약유관심
抱攝諸行 說如是事 應虛妄也
총섭제행 설여시사 응허망야

又鑄寫佛像者 即一切眾生
우주사형상자 즉일체중생
求佛道也 所謂修諸覺行 假像如來眞
求佛道也 所謂修諸覺行 假像如來眞
구불도야 소위수제각행 가상여래진
容妙相 豈道鑄金銅之所作也
용묘상 기도주금동지소작야
是故求解脫者 以身爲爐 以法爲火
是故求解脫者 以身爲爐 以法爲火
시고구해탈자 이신위로 이법위화
以智慧爲工匠 三聚淨戒 六波羅密
이지혜위공장 삼취정계 육바라밀
以爲模樣 鑄鍊身中眞如佛性
이위모양 용련신중진여불성
遍入一切戒律中 如教奉行
遍入一切戒律中 如教奉行
변입일체계율모중 예교봉행
一無缺漏 自然成就眞容之相
일무결루 자연성취진용지상
所謂 究竟常住微妙法身
所謂 究竟常住微妙法身
소위 구경상주미묘법신
非是有爲敗壞之法 若人求道
非是有爲敗壞之法 若人求道
비시유위패괴피법 약인구도
不解鑄寫眞容 憑何輒言成功德也
불해주사진용 빙하절언성공덕야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청정한 법체에서 이러한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법유(法乳)를 흘러
내리게 해서 해탈을 구하는 이들을 법
유로 기르시니, 이와 같은 청정한 소

대답했다. "경전은 무수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 중생들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은 뜻을 알지 못하
므로 유위(有爲)의 일로 무위(無爲)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안으로

몸 가운데 진여불성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으면 '眞容의 모습'

의 청정한 유유를 마시면 비단 부처님
만 그걸 드시고 성도(成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도 마시거니와 하면 위
없이 바로고 참된 도를 알게 된다."
다시 물었다. "경전에는 '중생이 절
을 짓고 성상(聖像)을 세우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장엄등을 켜고,
밤낮으로 여섯 차례나 행도(行道)하고,
계제(齋戒)를 지키며, 예배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의 공덕을 닦으면 불
도를 이룬다' 하였는데, 오직 관심법
(觀心法)에 모든 수행이 포함된다 하
시니 이전 전혀 허망한 말 같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밖에서 복을 얻으려 한
다면 옳은 처사가 아니다. 가람이란
범어의 음략(音略)인데 청정처란 뜻이
다. 만약 삼독을 영연히 없애고 항상
육근이 깨끗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
고 고요하여 안팎이 청정하다면 이것
이 가람을 짓는 것이다. 또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도를 구할
때, 말하자면 각행(覺行) : 自覺·覺他
하는 행법)을 닦을 때에 여래의 참되
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
지 여섯 법을 금동(金銅)으로 주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바라는
자는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工匠)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도장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어 하지도 빠뜨
림 없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절로 진용
(眞容)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허물어지는 유훈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진리의
미묘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眞容)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
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헌 큰 스님과의 대화

여름특집 해외고승편 I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려 매사가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이때,
세계의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외 고승들의 청량한 법문을 듣는
지리를 4회에 걸쳐 마련한다. 이번 호에서는 벽안의 비쿠 보디

(Bhikkhu Bodhi) 스님에게 우리가 고(苦)의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불
국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
침을 청했다.

비쿠 보디 <스리랑카 불교출판회장>

“욕망때문에
정신적 능력
발휘못해요”

비쿠 보디 스님은 미국의 브루클린에
서 태어나 브루클린 대학과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각각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스리랑
카에서 출가한 스님은 주로 아시아와 북
미주 대륙을 오가며 남방불교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글은 '고통에서 벗
어나는 길(The Way to the End of
Suffering)'을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을
대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 족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밧
줄 그 자체입니다. 이 밧줄 즉 외부세계
가 인간의 족쇄도 아니며 인간이 외부세
계에 대해 족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
간도 외부의 대상 세계에 묶어놓는 족쇄
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아주 힘이
강해 인간을 외부 대상 세계에 공공 묶
어놓아 끊임없이 생과 사의 헛바퀴를 맴
돌게 합니다. 이 강력한 족쇄는 눈·귀·코·
혀·몸 그리고 정신적 기능이라는
여섯 가지의 감각기능이 만들어낸 것이
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
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
염되고, 전통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습
니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
이 이러한 고통에 직면하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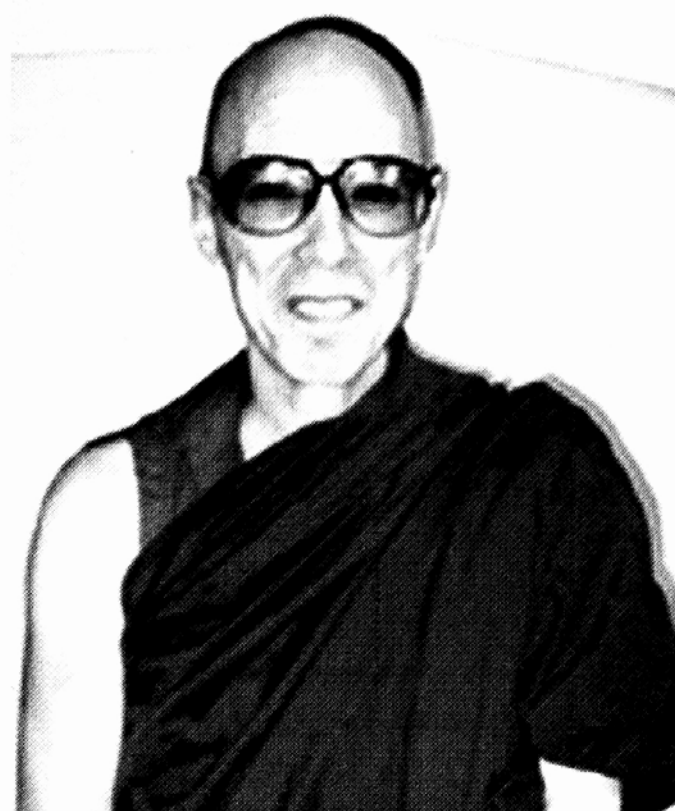
▲경전 중에는 이 세상과 사회의 진화
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초의 인류의 몸은 마음으로 만들어졌
으며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극히 향기로운 어떤 것을 맛보게 되자
마음에서 욕망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들
의 몸은 점점 둔탁해 졌다고 합니다. 몸
의 빛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 이 이
야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감각
적 욕망 때문에 우리의 높은 정신적 능
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을 욕망으로 생
긴 고(苦)에 묶여 움푹딱딱 못하는 존재
로 묘사했습니다. 빠알리어 경전에서는
삼요자나(결박), 반다(족쇄), 파싸(땀)
등을 비유적으로 사용해, 인간이 문화의
삶에 묶여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
요. 이 비유에 의하면 검은 소와 흰 소가
한 밧줄의 양끝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검은 소가 흰 소에 묶여 있거나 흰 소
가 검은 소에 묶여 있다고 말할 수 없지

감각기능에 해당하는 빠알리어는 인드
리아(indriya)인데, 이 단어는 우리 인간
들의 처지를 여러 모로 시사해 주는 아
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인드리아(indra)는
군림자 또는 왕을 뜻하는데, 감각기능을
인드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그것
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뜻이지요. 눈은 항상 즐거운 현상을 보고
싶어하고, 귀는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코는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하고,
혀는 즐거운 맛을 누리려 하고, 몸뚱이는
즐거운 감촉대상을 느끼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이처럼 여러 감각기능을 조화롭게 일
체화시켜야 하는, 여섯 번째의 감각기능
즉 정신적 기능은, 서로 다른 이질적 감
각 자극을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이끌려
다니느라 몹시 어지럽지요. 그런 가운데
도 자기 교유의 뜻인 회망·기여·상상
따위의 형태로 마음을 더욱 교란시키니

—스님께서는 현대인이 안고 있는 고
(苦)의 근원에는 여섯 가지의 감각 기능
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깨달음을 얻
기 위해서는 육근(六根)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육근에서 비
롯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
십시오.

▲우리가 감각적 자극에 얽매게 되
는 것은 탐욕 때문이요, 우리는 즐거운
대상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눈을 즐
겁게 해주는 대상을 가능한 한 많이 조
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정력과 돈을
쓰지요, 우리는 즐거운 말을 듣기를 좋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번 우리를
칭찬했다면, 우리는 즐거운 그 말을 종종
회상하게 될 것이며, 그 즐거움에 집착하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
다. 잘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때도 있는데, 우리는 허를 겹겹히 해주러
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에
다달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음식에 탐
닉하는 적도 있지요. 성욕을 만족시키려
는 인간의 욕망 또한 아주 강해서 심지
어 생명에 걸려 고통받고 무력해질 그
엄청난 위험마저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곤경은, 예로부터 전통
적으로 쓰여온 비유 즉 '맛있는 꿀을 마
음껏 즐기려다 꿀통 속에 빠져 죽어가는
개미'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탐욕에 의해
속박되는 바로 그만큼, 혐오감이나 증오
의 함정에도 빠질 수 있어요. 혐오감은
불쾌한 감각적 자극 때문에 생겨납니다.

약 력

- 미국 브루클린 생
· 브루클린대학 및 클레어몬트대학에서
서양철학 전공
· 1972년 스리랑카에서 출가
· 올 5월 15일 국제연합(UN) 뉴욕본부
에서 열린 첫 불국법요식 증명 법사
· 現 스리랑카 불교출판회 회장
· 주유저서 <아비달마 철학 입문서>
· <부처님의 중도 담론> 등 다수

혐오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불쾌한 대상에 더욱 더 강하게 속박당하
게 되는 법이요.

한 예를 들어보죠.
식사를 하기 바로 전이나, 하는 도중에
어떤 메스꺼운 것을 보았다고 칩시다. 그
것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에 달해서 심지어
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거부
하게 될 지 모릅니다. 이처럼 감각기관들
을 매개로 생겨나는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
히게 되면 인간의 활동영역은 명확한 한계
선이 그려지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치 밧줄에 매인 짐승의 행동반경이 밧줄의
길이 안으로 제한당하는 것과 같아요. 이
때 그에게 있어서 밧줄을 맨 기둥 노릇을

왕토 흙막돌 기계
실용신안
의정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도굴시공
● 도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 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6기 佛敎儀式(범음·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이과 및 통산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다루는법, 도량석
씻음,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발공식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주작법, 지장칭
관음식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8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8월 25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2000학년도 2학기 한성대사회교육원
불교중무행정 고위자 과정반(4기생) 모집 안내
삼보에 귀의 하시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날로 날로 발전하는 불교 중무행정 고위자 과정반을
지난해 3월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1·2·3기생 110명을 교육하였고 이번 학기에 4기
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을 전수 각종 행정 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 사회의
사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래
1. 수업기간 : 불기 2544년(2000년) 9월 19일 ~ 12월 19일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3. 모집인원 : 남·녀 40명
4. 자 격 : 불교 중무행정 관계자나 중무행정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연령·학력·교과 제한 없음.
5. 수 강 료 : 1인당 30만원(1학기)
6. 문 의 처 : 한성대학교 사회 교육원 교학과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39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7. 제출서류 : 본인 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학생증용)
8. 접수기간 : 2000년 7월 20일부터 ~ 8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함
9. 문 의 처 : 한성대학교 사회 교육원 교학과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39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10. 교통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하차, 도보로 5분거리임.
*마을버스 5분마다 운행.
11. 1기생(2년과정)졸업예정자들은 졸업준비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고 휴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4학기 졸업기념 여행준비 및 앨범제작)
이런 학기 개설 강좌내용
과 목 내 용
불교중무행정이론실천 불교중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을 강의함
사찰운영을 위한 컴퓨터 강좌 사찰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기법과 정보체계를 강의함(컴퓨터 기초부터)
* 2년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게 증명명의 불교 중무행정사 자격증 수여예정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